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개인작인신념에 미치는 영향

안윤정*, 서지윤¹
¹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Undergraduate Students' Personal Agency Beliefs

Yoon-Jung An^{1*} and Ji-Yoon Seo¹

¹General Education of Donggu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개인작인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 대학생 446명을 대상으로 정서지능과 개인작인신념에 대한 측정도구를 기준으로 설문조사 하여 빈도분석,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상관분석, 선형회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성별에 따라 정서지능의 정서조절, 개인작인신념의 능력신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다. 학교 수준에 따라 정서지능의 타인정서지각과 개인작인신념의 능력신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으며 종교유무에 따라 정서지능의 타인정서지각, 정서활용에서, 개인작인신념의 능력신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정서지능과 개인작인신념간의 상관이 높게 드러났다. 정서지능의 타인정서지각, 정서활용, 정서조절이 개인작인신념의 두 하위요인인 능력신념과 맥락신념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능력신념에는 47%, 맥락신념에 22%의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맞는 진로선택의 과제를 잘 수행하기 위해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개인작인신념을 높이는 다양한 동기향상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purposed to examine how emotional intelligence affect undergraduate students' personal agency beliefs. For the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446 undergraduate students in metropolitan area. Data were analyzed by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rrelation analysis, and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regulation of emotion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pability beliefs of personal agency belief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ex and others' emotion appraisal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pability beliefs of personal agency belief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chool level. Also, the others' emotion appraisal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pability beliefs of personal agency belief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religion existence.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the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rsonal agency beliefs. The others' emotion appraisal, regulation of emotion and use of emotion of emotional intelligence have an impact on personal agency beliefs including capability beliefs and context beliefs, the explanation concerning capability beliefs(47%) and context beliefs(22%) was persuasive. Therefore, when undergraduate students have to make career decision for their future, in order to encourage personal agency beliefs which are related to motivational factors, the conseq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was verifi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any kinds of supporting systems to encourage the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rsonal agency beliefs.

Key Words : Capability Beliefs, Context Beliefs, Motivation, Emotion Intelligence, Personal Agency Beliefs,

*Corresponding Author : Yoon-Jung An (Dongguk University)

Tel: +82-2-2290-1638 email: ayj1229@dongguk.edu

Received October 29, 2012 Revised (1st November 27, 2012, 2nd December 7, 2012) Accepted February 6, 2013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대학생들에게 진로선택과 결정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며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발달과제이다. 진로발달의 관점에서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대학생은 자기정체감을 확립하고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과업을 수행해야한다[1]. 특히 오늘날같이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과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난 2월에 졸업한 대졸자의 38.3%가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을 만큼[2]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실업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대기업 위주의 구직활동, 스펙지향의 취업준비, 취업처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눈높이 등 취업준비생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고용없는 성장, 꿩잡은 일자리의 감소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3]. 이러한 상황에서 첫 직업을 선정하고 구직활동을 펼치는 등의 진로탐색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은 사회로 나갈 준비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실망감, 패배감을 가지게 된다.

이런 문제를 고려하여 최근 대학과 관련 기관에서는 취업과 구직에 관한 스킬을 향상시키는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시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망실업, 구직포기의 대졸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첫 직장에 오래 머무르지 못 하는 근로의욕 상실[4] 등의 현실을 볼 때, 이들이 대학생활 동안 삶 전반에 대한 진로설정과 탐색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동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절실하다고 본다.

동기는 일생동안 인간능력을 개발하는데 심리적 기초를 제공하며[5], 이러한 능력이 진로분야에서도 적용되어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 왔다. 이러한 동기를 높이는데 있어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은 인지, 행동 및 정서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입증되었다.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인간 행동의 동기적 요인으로서 중요성이 인식되었고 성취행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6, 7, 8].

동기와 관련해서 이러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와 같은 합리적이고 인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에 대한 중요성이 조명되기 시작했다[9]. 정서는 바라던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구성된 행동들을 지지하거나 촉진시킴으로써 역동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사람과 환경의 상호작용과 걸맞는 평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 조절기능’을 담당한다[10]. 또한 행동을 동기화시키고 에너지를 불어넣으며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며 진로의 방향을 설정해주며 진로를 발달시키는 역할을 한다[11]. 이처럼 정서

가 개인의 전체적인 동기를 증진시켜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정서지능과 학업성취[12], 취업스트레스[13], 진로준비행동[14], 진로결정자기효능감[15] 등을 주로 다루었다. 정서지능이 학업을 포함한 진로태도 등 진로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요인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정서지능이 자기효능감 개념을 넘어서는 환경에 대한 평가와 믿음 등에 대한 맥락신념을 포함하는 개인작업인신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과 같이 취업문제가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이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고용구조의 상황에서 주어진 맥락에 대한 평가는 동기를 향상시키는데 개인 자신에 대한 믿음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갖는 정서지능이 개인작업인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동기에서 정서와 개인작업인신념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대학생의 전체적인 동기를 높이기 위한 정서와 개인작업인신념의 역할을 규명해 내고 대학생들의 근원적인 동기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1.2 이론적 배경

1.2.1 동기체계이론과 개인작업인신념

기존 동기 이론을 통합적이고 실증적인 측면에서 체계화한 동기체계이론(motivational system theory)은 인간을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 건설적 힘을 가진 유기체로 간주하고 발달적 관점에서 인간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Bandura[16]는 동기가 선택, 활성화, 행동의 지연된 방향을 지배하는 심리적 기제이며 이를 중재하는 결정요소라고 보았다. 전통적으로 동기는 인간의 행동에 활력을 주고, 그 행동을 이끌게 하고, 지속하게 하는 기능과 연관이 있다. 동기는 개인목표, 개인작업인신념, 정서적 각성 등으로 구성된다[5].

이러한 동기양식의 요소들 간의 관계는 그림 1과 같이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표현된다. 이들의 관계는 복잡하고 비연속적이며 특정한 사건에서 구성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다른 요소가 제자리를 확고히 차지하고 있을지라도 실행하는데 동기화되지 않지만 세 가지 요소들이 각각 일정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통해 동기는 훨씬 높아질 수 있다.

$$\text{동기} = \text{목표} \times \text{정서} \times \text{개인작인신념}$$

출처: Ford, M. E., "Motivating humans: Goals, emotions, and personal agency beliefs". Newbury Park, CA: Sage, 1992.

[Fig. 1] Formula of motivation

동기에서 개인작인신념의 기여는 원하는 결과를 성취할 기회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함으로써 ‘동기의 본부’ 안에서 이루어진다. 목표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 기술(skill)과 환경이 필요한데 이를 능력신념(capability beliefs)과 맥락신념(context beliefs)으로 나누었다[5]. 능력신념에 대한 의미는 Chapman, Skinner, Baltes[17]의 작인신념(agency beliefs)과 Gurin과 Brim[18]의 개인효능감(personal efficacy) 의미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특히 Bandura[19]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 기대와 근접한 부분도 있지만 그 개념이 특정한 상황속의 행동일화에서 과제 목표에 대한 신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실상 맥락, 결과, 신념 등을 배제하며 특정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개인작인신념의 개념은 자기효능감보다 좀 더 포괄적 의미로 능력신념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과 효과적 기능,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서적 분위기 등의 반응적 환경 요소를 포함한다. 개인작인신념은 한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거나 목표를 달성할 기회가 있는지 혹은 능력이 되는지 등에 대한 평가와 원하는 결과, 어떤 목표와 기대 되는 결과, 목표를 추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 간의 비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5]. 이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인 능력신념과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지에 대한 평가인 맥락신념으로 구성된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적절한 기술과 호응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희망, 자신감과 같은 특성은 주요기술의 상실, 목표획득에 있어 큰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만성적 환경 스트레스에서 오히려 약해진다. 주어진 맥락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만을 논하는 것은 설정된 목표를 실현시키는 과정의 전부를 설명해 줄 수 없다. 개인작인신념은 도전적이지만 획득할 수 있는 목표를 실현해야 하는 가장 큰 발전의 상황에서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5]. 능력신념의 의미가 특정한 성취에 요구되는 구체적 기술에 의존하는 것과 같이 맥락신념의 정확한 의미는 성취관련 특정한 환경적 요소와 연관이 있다. 사람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신체적 능력을 저

해하지 않는 물리적 환경과 지지할 수 있는 심리적 환경, 필요할 때 적절한 충고와 조언, 물질적인 지원 등이 포함된다.

개인작인신념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십대를 대상으로 개인적 책임감과 문제해결에 있어 개인작인신념의 역할을 강조한 연구[20, 21],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해당 유형을 살펴본 연구[22],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6가지 학교 개선모델에 따른 개인작인신념을 살펴본 연구[23], 5가지 목표에 대한 개인작인신념의 차이를 검증한 연구[24], 직무관리 특성, 직무수행평가, 조직문화가 재직자의 개인작인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그들의 동기를 높이기 위한 직무환경과 직무수행평가 방식 등을 지적한 연구[25] 등이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개인작인신념에 따른 개인목표와 변화인식에 대한 연구로 대학생들의 개인작인신념 유형을 분석하고 개인작인신념이 높을수록 개인목표와 변화인식이 높아짐을 증명하였다[26]. 대학만족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로 대학만족이 개인작인신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대학생의 진로선택과 결정의 중요한 동기적요소인 개인작인신념을 높이기 위한 대학만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27].

개인작인신념에 대한 연구는 적은 편이며 특히 개인작인신념에 정서지능을 적용한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선행연구를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자신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반응적인 환경인지에 대한 믿음이 주어진 맥락 속에서 잘 적응하는지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2.2 정서지능

정서는 바라던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조직된 행동들을 지지하거나 촉진시킴으로써 역동적 기능을 수행한다[28]. 정서는 상상된 환경이나 현실에서 잠재적이거나 현재의 관심에 국한된 인지적 평가에 의해 더 많이 활성화된다[10, 29]. 동기체계 안에서 정서는 사람을 활동하게 만들고 즉각적 위기나 기회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촉진하기 때문에 동기화과정을 통해 설정된 목표를 실제 상황에서 능력을 발휘해 성취하고자 할 때, 각성 기능을 함으로써 에너지의 핵심적 근거로 작용한다. 즉, 정서는 단순히 동기의 부가물이 아니라 특정한 행동일화의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변하기 쉬운 목표와 개인작인신념에 동력을 가하고 틀을 잡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속적인 동기의 양식에서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정서에 대한 광범위한 개념을 정서지능이라고 명명하면서 정서지능의 4차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30]. 자신의 깊은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타인의 정서를 이

해하고 지각하는 능력,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건설적 활동과 개인적 수행을 위해 자신의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 등이 그것이다. 정서가 동기체계안에서 목표와 개인자아신념을 촉진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능력으로서 적극적 의미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지능과 관련해서 대학생 대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서지능이 유능감과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학습 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증명한 연구가 있으며[12], 대학생 생활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다[31]. 정서지능과 진로결정과의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이 높았으며 특히 정서지능의 정서인식이 진로결정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32]. 정승현·김금미[14]의 연구에서도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진로탐색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으며 자기정서평가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정서와 진로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진로결정효능감이 높고 직업탐색과 직업헌신에 대한 명확성과 확신이 커진다고 분석되었다[33].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정서지능이 대학생의 적응을 돕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태도와 행동, 신념적인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연구문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개인자아신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성별, 학년별, 전공별, 학교수준별, 종교유무별 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정서지능과 개인자아신념의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개인자아신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한다.

2. 연구방법

2.1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2. 9. 25~10. 9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수도권의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49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중 누락된 응답이 많은 경우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나머지 총 44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개인특성으로 성별, 학년, 전공, 학교수준, 종교유무를

선정하였다. 정서지능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 주된 변인으로 성별, 학년, 전공 등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특히 성별과 관련해서 탁진국[34]은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에 일관성이 없어 중요한 변인으로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개인자아신념과 관련한 기존연구[27]에서 학교수준을 중요한 변인으로 분석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종교가 주는 삶에 대한 안정감과 정돈된 느낌[35]이 정서지능과 개인자아신념에 차이를 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개인특성의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학교수준은 교육여건 및 재정, 교수연구, 국제화, 평판 및 사회진출도 등을 기준으로 종합성적을 낸 '2012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를 반영하여 상위권 A집단부터 C집단까지 총3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분류한 대학순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세계적 대학평가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와 QS(Quacquarelli Symonds)의 국내대학순위도 함께 참조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구분		표집수	%
성별	남	164	36.8
	여	282	63.2
학년	1학년	125	28.0
	2학년	152	34.1
	3학년	54	12.1
	4학년	115	25.8
전공계열	인문	74	16.6
	사회	190	42.6
	이공	139	31.2
	예체능	36	8.1
	기타	7	1.6
학교수준	A집단	86	19.3
	B집단	246	55.1
	C집단	114	25.6
종교	없음	308	69.1
	있음	138	30.9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변수에 대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는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Varimax 회전방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정서지능과 개인자아신념 요인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서지능과 개인자아신념이 대학생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sample 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정서지능과 개인자아신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개인작인신념에 대한 정서지능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선형회기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통계검증에서 사용된 유의수준은 .05이다.

2.2 연구도구

2.2.1 정서지능

정서지능 측정을 위해 Wong와 Law의 연구[36]에서 사용한 'Emotional Intelligence Item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의 깊은 정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능력인 자기정서지각(예: 나는 대부분 왜 어떤 감정이 드는지 잘 안다), 자기 주변 타인의 정서를 지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인 타인정서지각(예: 나는 타인의 감정과 정서에 민감한 편이다), 정서적 정보를 조직하고 활용하여 감정을 개인성과의 긍정적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정서활용(예: 나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스스로를 격려한다), 자기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인 정서조절(예: 내 기분을 조절하고 어려움을 이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등의 4개 요인, 16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응답은 Likert 척도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타당도는 요인적 재량 .62~.87으로 나타났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1~.87로 드러났다.

2.2.2 개인작인신념

개인작인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Ford[5]의 개인작인신념 개념과 유형을 반영하여 하위변인을 설정하였다. 능력신념(예: 나는 내 목표를 이룰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과 맥락신념(예: 내가 마음먹은 것은 주변에서 잘 도와준다)의 두 가지로 각 6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작인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타당도는 요인적재량 .49~.79로 나타났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5~.80이었다.

3. 연구결과

3.1 개인별 특성에 따른 정서지능, 개인작인신념 차이분석

3.1.1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 개인작인신념의 차이

대학생의 정서지능, 개인작인신념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첫째, 정서지능에서는 정서조절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F=5.52, P<.001$). 둘째, 개인작인신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능력신념에서 높게 나타났다($F=3.11, P<.01$).

[Table 2] Distinction in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rsonal agency beliefs according to sex

구분	성별	N	M	SD	F	P
자기 정서 지각	남	164	3.80	0.70	-0.32	.746
	여	282	3.81	0.67		
타인 정서 지각	남	164	3.72	0.72	-1.94	.053
	여	282	3.85	0.67		
정서 활용	남	164	3.71	0.79	1.57	.117
	여	282	3.59	0.74		
정서 조절	남	164	3.66	0.80	5.52***	.000
	여	282	3.22	0.80		
능력 신념	남	164	4.00	0.58	3.11**	.002
	여	282	3.83	0.52		
맥락 신념	남	164	3.55	0.62	0.95	.349
	여	282	3.49	0.58		

** $P<.01$, *** $P<.001$

3.1.2 학교수준에 따른 정서지능, 개인작인신념의 차이

[Table 3] Distinction in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rsonal agency beliefs according to school level

구분	집단	N	M	SD	F	사후 검증
자기 정서 지각	A집단	86	3.73	0.77	0.781	
	B집단	246	3.82	0.64		
	C집단	114	3.84	0.69		
타인 정서 지각	A집단	86	4.00	0.77	4.14*	A>B,C
	B집단	246	3.77	0.64		
	C집단	114	3.74	0.74		
정서 활용	A집단	86	3.55	0.81	2.45	
	B집단	246	3.71	0.74		
	C집단	114	3.55	0.75		
정서 조절	A집단	86	3.29	0.89	1.47	
	B집단	246	3.45	0.82		
	C집단	114	3.33	0.81		
능력 신념	A집단	86	3.83	0.62	4.57*	B>A,C
	B집단	246	3.96	0.52		
	C집단	114	3.79	0.54		
맥락 신념	A집단	86	3.44	0.60	3.00	
	B집단	246	3.57	0.56		
	C집단	114	3.43	0.65		

* $P<.05$

학교수준에 따라 정서지능과 개인작인신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본 결과, 타인정서지각($F=4.14, P<.05$), 능력신념($F=4.57, P<.05$)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타인정서지

각은 A집단이 B, C집단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고, 능력신념은 B집단이 A, C집단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3.1.3 종교유무에 따른 정서지능, 개인작인신념의 차이

종교의 유무에 따른 대학생의 정서지능, 개인작인신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타인정서지각(F=4.02, p<0.01), 정서활용(F=4.41, p<0.01), 능력신념(F=2.41, p<0.5)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교있음이 종교없음보다 타인정서지각, 정서활용, 능력신념에서 높은 평균값으로 나타났다.

학년과 전공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 Distinction in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rsonal agency beliefs according to religion

구분	종교	N	M	SD	F	P
자기정서지각	없음	308	3.80	0.67	-0.57	.567
	있음	138	3.84	0.70		
타인정서지각	없음	308	3.72	0.70	-4.02***	.000
	있음	138	4.00	0.65		
정서활용	없음	308	3.54	0.77	-4.41***	.000
	있음	138	3.86	0.68		
정서조절	없음	308	3.37	0.84	-0.66	.507
	있음	138	3.42	0.82		
능력신념	없음	308	3.85	0.56	-2.41*	.016
	있음	138	3.99	0.52		
맥락신념	없음	308	3.48	0.60	-1.92	.055
	있음	138	3.59	0.58		

*P<.05, ***P<.001

3.2 정서지능과 개인작인신념의 상관 분석

자기정서지각, 타인정서지각, 정서활용, 정서조절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능력신념, 맥락신념에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개인작인신념도 함께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rsonal agency beliefs

	자기	타인	활용	조절	능력	맥락
자기	1					
타인	.296**	1				
활용	.279**	.108*	1			
조절	.356**	.176**	.306**	1		
능력	.234**	.199**	.645**	.387**	1	
맥락	.252**	.205**	.413**	.283**	.435**	1

*P<.05, **P<.01

3.3 정서지능이 개인작인신념에 미치는 영향력

[Table 6]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sonal agency beliefs

변인	변수	B	SE	β	t
능력신념	(상수)	1.68	.15		11.32***
	자기	-.02	.03	-.03	-.821
	타인	.09	.03	.11	3.03**
	활용	.42	.03	.58	15.58***
	조절	.13	.03	.20	5.27***
Adj R ² =0.47 F=96.40 p<.001, p<0.1					
맥락신념	(상수)	1.59	.19		8.18***
	자기	.07	.04	.07	1.57
	타인	.11	.04	.12	2.79**
	활용	.26	.04	.34	7.51***
	조절	.09	.03	.13	2.83**
Adj R ² =0.22 F=31.15 p<.001, p<0.1					

P<.01, *P<.001

개인작인신념에 대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능력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지능의 영향력은 R²=.47로 매우 컸고, 타인정서지각과 정서활용, 정서조절에서 유의(F=96.40, p<.001, p<0.1)하였다. 다음으로 맥락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지능의 영향력은 R²=.22였고, 타인정서지각, 정서활용, 정서조절에서 유의(F=31.15, p<.001, p<0.1)하였다. 하지만 자기정서지각은 능력신념, 맥락신념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 하위요인인 타인정서지각이 높은 학생은 능력신념과 맥락신념이 모두 높았고, 정서활용이 높은 학생도 능력신념에 모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서조절을 잘 하는 학생은 능력신념에 매우 높은 영향을, 맥락신념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신의 깊은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인 자기정서지각은 상관분석에서 보았듯이 개인작인신념과 상관은 있으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기정서지각을 제외하면 정서지능의 하위 3개 요인이 모두 개인작인신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대학생이 가진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지각하는 능력, 건설적 활동과 개인적 수행을 위해 자신의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등의 정서지능의 측면이 자신에 대한 능력과 기술에 대한 신념과 주변 환경에 대한 긍정적 평가인 맥락신념에 의미있는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개인 특성에 따라 정서지능, 개인작인신념의 차이를 살펴보고, 정서지능이 개인작인신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학생의 정서지능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취업스트레스, 학업성취 등에 초점을 맞춘데 반해 본 연구는 정서지능과 동기의 핵심요소인 개인작인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정서지능과 개인작인신념에 부분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정서지능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정서조절을 잘 하는 것으로 드러나,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정서지능이 높거나 거의 차이가 없다는 이수미 외[37]와 이광희[38], 유나현·이기학[15]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였다. 서비스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탁진국[34]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정서조절을 잘 하고 있다는 결과와는 부합하였다. 개인작인신념에서는 남학생의 능력신념이 여학생보다 높았는데, 능력신념을 정서적 목표, 사회적 관계의 목표 등과 같은 어떤 종류의 목표와 목표를 향한 과정을 억제하거나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행동유형을 조직화하려는 신념까지 포함한 개념 [25]으로 볼 때, 목표 설정과 목표를 향한 성취과정에 대한 자신에 대한 신념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은 편으로 해석된다.

학교수준에 따른 차이는 정서지능과 개인작인신념에서 각각 유의미했다. 정서지능의 타인정서지각에 있어서 A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고, 개인작인신념의 능력신념에서는 B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타인정서지각에서 타집단에 비해 높았던 A집단이 능력신념에서 B집단보다 낮았다. 이는 안윤정 외[27]의 연구에서 학교수준이 높은 A와 B그룹의 학생들이 C와 D그룹에 비해 능력신념에서 유의미하게 낮게 나온 결과와 비슷하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소위 대학서열이 높은 대학에 입학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 개인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동기와 관련해서 사회로부터 부여된 객관적 평가보다는 자신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평가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인이 객관적으로 유능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신이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내적 동기는 결코 높지 않기 때문이다.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는 타인정서지각, 정서활용, 능력신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각 요인에서 종교가

있다고 답한 학생들이 종교가 없다고 답한 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종교가 있는 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타인지향적인 공감능력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39]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보인[40]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종교가 있음으로 응답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이타적이고, 최선을 추구하며, 종교를 통해 삶의 비전을 갖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경험함으로써 타인정서지각, 정서활용, 능력신념에 반영된 것으로 예상된다.

학년과 전공별 차이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학년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가 있었던 최지현[31]의 연구와는 상반되고 전공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는 통계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던 연구 [31, 41]와 일치했다.

둘째, 정서지능과 개인작인신념의 관계와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정서지능과 개인작인신념 사이에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정서지능의 타인정서지각, 정서활용, 정서조절이 개인작인신념의 두 하위 요인인 능력신념, 맥락신념이 모두에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다고 한 Brown[33]의 연구와 일치한다.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낮게 인식한다는 기존연구[32]를 고려해볼 때 정서지능이 주어진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에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정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인 자기정서지각은 개인작인신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정서지능의 정서인식 및 표현이 진로탐색행동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42], 진로탐색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8]. 이중희[41]의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의 해당 하위요인이 진로의사결정효능감의 문제해결 부분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서지능에서 자기정서지각은 기존연구에서도 다양한 결과들이 나온 것으로 보여 좀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정서지능의 하위요인들을 통해 정서지능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데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자신의 불안과 분노와 같은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 어떤 일을 할 때 적절히 자신을 분발시키는 역할, 타인의 기분과 분위기를 읽어내고 대인관계를 맺는 역할을 통해 개인작인신념을 지원해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개인작인신념은 성별, 학교수준, 종교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정서지능은 개인작인신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서지능이 높으면 개인작인신념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이 수도권의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모든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방대학과의 비교를 통해 정서지능과 개인작인신념에서의 차이를 보는 것이 후속연구에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동기체계이론과 관련한 국내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 동기적 요인인 목표, 정서, 개인작인신념 등의 활발한 논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전반적인 동기를 높이는 데에 개인작인신념과 정서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생들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입직에 성공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 이로 인해 진로 목표를 상실하거나 더 이상 의욕을 잃고 구직포기 및 실망실업 상태로 빠지기 쉬운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근본적인 동기를 향상시키는 데에 정서지능과 개인작인신념이 동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Ford[5]는 동기체계 안에서 장기적인 목표를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개인작인신념을, 단기적인 목표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정서를 동기의 주요한 원동력으로 지적했다. 대학생들에게 있어 장기적 목표라면 인생 전반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 속에서 무슨 직업을 선택해 사회로 진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 장기적 목표를 위해 학년별, 수준별로 수행해야 할 과제, 사회경험, 혹은 소위 말하는 특정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목표 계획들은 전자에 비해 단기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인작인신념을 통해 장기적인 목표수립과 이를 실행해나가고자 하는 동력을 심어주고, 발달과정마다 정서지능을 북돋아주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통합적이면서도 정교한 동기향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와 취업에 관한 프로그램이 직접적인 구직스킬, 취업준비에 해당하는 역량만을 강화하는 근시안적인 프로그램에 그치지보다는 장기적인 목표 안에서 삶의 근본적인 내적 동기를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동기향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References

[1] Felsman, D. E., Blustein, D. L., "The role of peer relatedness in late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 pp. 279-295, 1999. DOI: <http://dx.doi.org/10.1006/jvbe.1998.1664>

[2] Nam, Ja-Ryang, "Youth unemployment sentiment report",

Korea Labor Institute, 2011.

[3] Chai, Goo-Mook, "An analysis of the realities and causes of youth and new college graduate unemploy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6, No. 3 pp. 159-181, 2004.

[4] Park, Sung-Jun, "College youth unemployment, Is there no problem to themselves?", KERI, 2007.

[5] Ford, M. E., "Motivating humans: Goals, emotions, and personal agency beliefs". Newbury Park, CA: Sage, 1992.

[6] Jang, Sun-Chul, "Relation between university students' personal variables, social supporting, self-efficacy belief and career decision", *Agricultural Education HRD*, vol. 37, No. 3, pp. 156-182, 2005.

[7] Jin, Jun-Hyeok, "Impact of the self-efficacy, the career decision level and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of the university student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hung-ang University, MA. Thesis, 2010.

[8] Jung, Seung-Hun,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search self-efficacy", Kwangwoon University, MA. Thesis, 2010.

[9] Salovey, P., & Mayer, J. D.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vol. 9, No 3, pp. 185-211, 1990. DOI: <http://dx.doi.org/10.2190/DUGG-P24E-52WK-6CDG>

[10] Ford, D. H. "Humans as self-constructing living system: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behavior and personality.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1987.

[11] Young, R., A., & Valach, L. "Interpretation and action in career counseling". In Savickas, M., L., & Walsh, W., B.(Eds), *Handbook of career counselling theory and practice*. Palo-Alto: Davis-Black, 1996.

[12] Lee, Sook-Jeong, "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need for competence and stress on the level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of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 19, No. 1 pp. 53-69, 2012.

[13] Lim, Hye-Sung, "Relationship among university student's self-efficacy, emotional intelligence and job stress", Konyang University, MA. Thesis, 2011.

[14] Jung, Seung-Hun & Kim, Keum-Mi,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search self-efficacy", *The Korea Journal of Counselling*, vol. 11, No. 2, pp. 739-753, 2010.

[15] Yoo, Na-Hyun & Lee, Gi-Hack, "The effects of attachment, psychological independence and emotional

- intelligenc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vol. 17, No. 2, pp. 451-466, 2005.
- [16] Bandura, A. "Human agency: The rhetoric and the reality", *American Psychologist*, 46, pp.157-162, 1991. DOI: <http://dx.doi.org/10.1037/0003-066X.46.2.157>
- [17] Chapman, M., Skinner, E. A., & Baltes, P. B., "Interpreting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perceived control and cognitive performance: Control, agency, or means-ends belief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pp. 246-253, 1990. DOI: <http://dx.doi.org/10.1037/0012-1649.26.2.246>
- [18] Gurin, P., & Brim, O. G., Jr. "Change of self in adulthood: The example of sense of control". In P. B. Baltes & O. G. Brim, Jr.(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6, pp. 281-334, 1984.
- [19] Bandura, A.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pp.122-147, 1982. DOI: <http://dx.doi.org/10.1037/0003-066X.37.2.122>
- [20] Chong, W. H, "The role of self-regulation and personal agency beliefs: A psycho educational approach with asian high school students in Singapore". *The Journal for specialists in Group Work*, vol. 30, No. 4, pp. 343-361, 2005. DOI: <http://dx.doi.org/10.1080/01933920500184964>
- [21] Chong, W. H, "The role of personal agency beliefs in academic self-regulation: An asian perspective",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vol. 28, No. 1, pp. 63-76, 2007. DOI: <http://dx.doi.org/10.1177/0143034307075681>
- [22] Haney, J., & Lempe A., T. "Profiling the personal agency belief patterns of K-12 science teachers", Natio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San Diego, CA, April, 1998.
- [23] Gale, J. "Science education in context: An exploration of urban elementary teachers' personal agency belief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ducational Studies, Emory University, 2011.
- [24] Love, R. L., Ford, M. E., & Chase, C. "Social level and satisfaction as predictors of personal agency beliefs in adolescenc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1992.
- [25] An, Yoon-Jung, "The effects of job management characteristics, organizational culture, performance appraisal on workers' personal agency beliefs", Kyonggi University, Ph.D Thesis, 2010.
- [26] An, Yoon-Jung & Kim, Mi-Kyoung, "The analysis of undergraduate students' personal agency beliefs by personal goals and change percep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5, No. 2, pp. 87-213, 2012.
- [27] An, Yoon-Jung, Oh, Hyun-Joo & Kim, Mi-Kyoung, "The effects of university satisfaction on undergraduate students' personal agency belief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4, No. 4, pp. 151-171, 2011.
- [28] Vondracek, W. F., & Kawasaki Tomotsugu, "Toward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adult career, development theory and intervention".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NJ:Lawrence Erlbaum Associates, pp. 111-142, 1995.
- [29] Lazarus, R. S. &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1984.
- [30] Mayer, J. D., Salovey, P., & Caruso, D. "Emotional intelligence". In R. J. Sternberg(Ed.), *Handbook of intelligence*(2nd ed., 396-42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DOI: <http://dx.doi.org/10.1177/1462474500002002013>
- [31] Choi, Ji-Hyun,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resilience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Yonsei University, MA. Thesis, 2008.
- [32] Kim, Jong-Un & Park, Sung-Sil,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4, No 4, pp. 209-229, 2012.
- [33] Brown, C., George-Curram, R., & Smith, M. L. "The role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career commitment and decision-making proces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11, No. 4, pp. 379-392, 2003. DOI: <http://dx.doi.org/10.1177/1069072703255834>
- [34] Tak, Jin-Kook, "Employees in service organizations differences in job stressors by sex and job position",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9, No. 3, pp. 729-741, 2004.
- [35] Jung Eun-Sil, "The Influence of propensity of religion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on the subjective well-being",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MA. Thesis, 2011.
- [36] Wong, C., & Law, K. S.,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attitude and performance: An exploratory study. *Leadership Quarterly*, vol. 13, pp. 243-27, 2002. DOI: [http://dx.doi.org/10.1016/S1048-9843\(02\)00099-1](http://dx.doi.org/10.1016/S1048-9843(02)00099-1)
- [37] Lee, Su-Mi, Cho, Kyung-Ja, & Kim, Hye-Ri,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16, No. 3 pp. 131-147, 2009.

- [38] Lee, Gwang-He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ankook University, Ph.D Thesis, 2008.
- [39] Bak, Mi-Soo, "The difference in forgiveness and empathy as functions of gender and religion in the college students", Dankook University, MA. Thesis, 2009.
- [40] Moon, Sung-Sil,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ense of humor on their interpersonal skills and self-efficacy", Myungji University, MA. Thesis, 2010.
- [41] Lee, Joong-He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undergraduate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MA. Thesis, 2006.
- [42] Kim, Yeon Sook,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mindfulness,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s in undergraduate students", Dankook University, Ph.D Thesis, 2011.

서 지 윤(Ji-Yoon Seo)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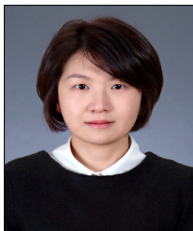
- 2008년 2월 :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직업학과 (직업학석사)
- 2011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박사과정
- 2000년 7월 ~ 2009년 5월 : (주) 대학과미래 부장
- 2010년 12월 ~ 현재 : 커리어컨설팅연구소 소장
- 2012년 3월 ~ 현재 : 동국대학교 외래강사

<관심분야>

직업심리, 직업상담심리, 직업윤리

안 윤 정(Yoon-Jung An)

[정회원]



- 199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200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노동) (여성학석사)
- 2011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직업학박사)
- 2009년 9월 ~ 2011년 2월 :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초빙교수

<관심분야>

직업심리, 여성진로, 직업정보, 직무분석